

코로나19 헛소문·가짜뉴스 확산에 시민들은 불안하다

신천지 연루 허위사실에 프랜차이즈업체 억울함 호소 허위신고·횡설수설 거짓진술에 행정력 낭비도 심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 108개 점포를 갖고 있는 군고구마 카페 '청자다방'은 확산되는 가짜뉴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련기사 9면>
지난 21일부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청자다방을 가시면 안 됩니다' 등의 글이 적힌 문자메시지가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음료 주문을 위해 카페 앞까지 왔다가도 일행이 '여기

신천지가 운영하는 곳이야'라며 발길을 돌리는 손님이 부지기수다.
점주들은 해명할 시간도 없이 손님은 나가버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소문이 확산되면서 청자다방의 점포 매출이 대부분 30~40% 떨어졌고, 평소 10건 정도의 가맹점 문의전화가 분사로 오지만 문자 메시지가 퍼진 뒤로는 한 통의 문의전화도 오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청자다방의 심벌마크 때문이었다. 간판에는 청자다방 앞에 'S' 모양의 심벌마크가 있는데 이를 두고서 'S청자

다방'이 적힌 간판을 '청자'의 초성을 떼서 'S청자다방', 곧 '신천지다방'이라는 말이 확산됐다.
이같은 소문에 청자다방 본사는 아무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부터 'S' 모양의 심벌마크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청자다방 측은 문자메시지로 소문을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짜뉴스는 끊임없이 나오고 확산되는 속도는 겹잡을 수 없이 빠르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중심으로 '신천지 교인이 해남의 한 사우나에 들러 사우나와 인근 가게가 폐쇄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이에 해남보건소 등에는 주민의 문의전화도 폭주했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사우나 다녀왔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해남에는 확진자나 접촉자로 분류된 능동 감시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우나 업주는 가짜뉴스로 인한 영업 피해를 호소 경찰은 유포자를 추적해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사람의 근거 없는 발언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킨 사건도 있었다.
지난 22일 오후 4시쯤 광주의 한 대형서점에서 쓰러진 A씨(24)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중국인



접촉과 신천지 교인으로 대구교회에 다녀왔다고 얘기했다.
그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던 중 격리된 상태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챙겨도주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 동부경찰서는 형사

과와 지구대 직원 등 30여명을 동원해 1시간여 만에 A씨가 병원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색을 마쳤다.
검사 결과 그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신천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텅 빈 무안공항행 버스 24일 오후 5시 광주에서 무안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이 텅 비어있다. 해당 노선은 손님이 한 명도 탑승하지 않은채 무안공항으로 출발했다.

코로나19 위증환자 2명→6명...산소치료 14명 유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건강 상태를 위중하게 보는 확진환자가 6명 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같은 시간대에 비해 4명이 늘었다.
산소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 환

자 수는 전날과 동일한 14명이다. 이에 따라 건강 상태가 위중하거나 중증인 확진환자 수는 총 2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오송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

리핑에서 "기계호흡이나 다른 중증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환자는 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소치료를 받는 확진환자 수는 14명"이라고 덧붙였다.
김원호 기자

광주시 '신천지'에 소극적?...이용섭 시장 "가장 빠른 조치" 반박

SNS 팩트체크 통해 '적극 행정' 강조 "역량 총결집 코로나 확산 막겠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신천지에 대한 시의 대처가 소극적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반박했다.
이용섭 시장은 24일 오후 자신의 SNS에 올린 '코로나19 팩트체크'를 통해 신천지 시설 폐쇄 등에 대해 광주시가 지자체 중 가장 빠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광주에 신천지 교회 및 선교센터와 복음방 등은 총 92곳"이라며 "광주에서 추가 확진자가 첫 발표된 지난 21일 바로 폐쇄 조치와 방역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배, 성경공부 등이 금지되고 있으며 시와 관할구청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왜 서울시와 경기도는 '신천지 시설 폐쇄'에 강력 대

응하는데, 광주시는 소극적이나...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항변했다.
신천지 신도 명단 확보가 늦어지는 이유와 전수조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시장은 "신천지 측은 대구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도 전체 명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어느 지자체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어제 오후 대통령 주재 '범정부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신천지본부와 협조해 지역별 명단을 확보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런 한계에도 시는 사실상 전수조사의 효과가 있는 관리체제에 들어갔다"며 "전수조사가 3만 2000여명의 교인을 일일이 확인?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시간 싸움"이라며 "새로운 감염자와 접촉자를 찾아내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와 신천지에서 보내온 자료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역학조사팀이 경찰과 함께 신천지 시설들의 CCTV 등을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신천지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시의 방역 체제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시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겠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호소했다.
한편 현재까지 광주에서는 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중 4명은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신도들이다.
나머지 3명도 모두 신천지 신도로 대구에 다녀온 확진자들의 부인이나 친구로 확인됐다.
신봉우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